

도서관인의

窓

제1회 도서관문화강좌를 다녀와서

: 박봉석과 엄대섭을 생각하며

임 영 선*

1. 시작하는 말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서관 문화강좌를 실시하였다. 4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강의는 첫시간이 부산대 김정근 교수의 「랑가나단의 사상과 실천」, 두 번째 시간이 중앙대 남태우 교수의 「세라의 도서관 사상」, 세 번째 시간이 계명대 오동근 교수의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 네 번째 시간이 한성대 이용남 교수의 「엄대섭과 도서관 운동」이었다. 본인의 부족한 면이겠지만, 랑가나단과 세라에 대해서는 문헌정보학과에 입학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면서 비교적 자주 접한 기억이 있지만, 부끄럽게도 박봉석 선생과 엄대섭 선생에 대해서는 별로 접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도서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존경할만한 그분들의 도서관 활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지금까지 그저 지나쳐 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두 분의 훌륭한 도서관인에 대해 배우고 알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두 분의 삶과 활동을 어떤 기준에 의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에, 그저 강좌내용과 몇가지 문헌자료를 통해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정리하여 적어보려 한다.

2. 박봉석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박봉석 선생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선생은 '우리나라 도서관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또는 '도서관 수호의 아버지', '한국의 멜빌 듀이, 한국도서관의 아버지 박봉석 선생'이라는 평가와 호칭을 듣고 있는 반면, '불운의 도서관인'이라는 호칭도 듣고 있다. 그 이유인즉 박봉석 선생과 미국의 멜빌 듀이, 인도의 랑가나단을 비교해 보면 분류표를 고안한 것, 도서관학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자라는 것, 그리고 도서관협회의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듀이와 랑가나단은 그들의 업적이 후진들에 의해 계승될 기회를 가진 반면, 박봉석 선생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운의 도서관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사람으로서 최초로 사서자격증을 취득한 사서, 도서관인 박봉석 선생은 1905년 8월 22일 경남 밀양의 상문리에서 태어나 밀양공립보통학교, 경성부 중앙고등 보통학교, 경성부 혜화

* 서울신학대학교도서관 사서(ysyim@stu.ac.kr)

전문학교에서 수학했다. 1931년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사서로 취임한 이래 6.25동란시 남북될 때까지 한국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헌신하였다.

박봉석 선생의 도서관인으로서의 생활은 너무도 성실하고 근면했다고 한다. 선생은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인 총독부도서관 재직시절 조선공공도서관도서분류표사안을 발표하였고, 해방직후의 혼란한 와중에 총독부도서관을 접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문헌수집대를 조직하여 자료를 모으기도 하였으며, 미군정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법률도서를 법제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전신인 조선도서관협회를 조직하고, 조선서지학회를 창립하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이해는 국민학교에서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1947년 국민학교 6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도서관'이라는 항목의 내용을 넣었는데, 6.25동란후 교과서 개편 시 삭제되었다고 한다. 선생은 동국대학에서 도서학을 강의하였고, 1946년 조선도서관학교를 세워 직접 분류와 목록을 가르치며 사서양성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선생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역시 1947년 조선십진분류표와 조선동서편목규칙을 편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독자적인 분류표와 편목법을 갖게 되었다. 조선십진분류표를 통해 일상적인 생활에 기본을 둔 선생의 '생활철학적 분류관'과 '과학적인 지식관'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조선동서편목규칙은 동양의 전통적인 방식인 서명주기입의 입장에서 전개하고, 서명목록(가나다순)을 사무용주목록, 분류목록(서명표목)을 열람용주목록으로 채택한, 한국의 실정을 고려

한 당시로서는 유일한 목록규칙이었다.

이와 같은 선생의 업적을 통해 그의 도서관에 대한 사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 민족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둘째, 사명감으로 일관되어 있다. 셋째, 강한 책임감으로 뭉쳐 있다. 넷째, 단결과 통일의 의지가 들어 있다. 다섯째, 앞날을 내다보는 지향성이 있다. 여섯째, 주도면밀함이 두드러진다. 일곱째, 조화의 미가 들어 있다. 박봉석 선생의 도서관사상은 이상의 요소들이 결합된 종합철학이며, 그는 도서관을 통해서 '애국'을 실천한 사람이다.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훌륭하게 애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 엄대섭에 대하여

엄대섭 선생은 자신이 '도서관사업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15 해방후의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기 탓이었다'고 말한다. 25세까지 선생은 돈벌이 지상주의자였는데, 6.25로 말미암아 선생의 꿈이 사라지고 말았기에, 그 당시의 선생에게는 도서관이란 단지 혼란기를 피하려는 임시방편이었지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선생의 도서관 활동은 단순히 도서관인이라기 보다는 '사회운동가'라는 표현이 더 걸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봉사에 대한 선생의 공로가 인정을 받아 1980년에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1921년 1월 21일 경남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에서 태어난 엄대섭 선생은 어릴적 부모님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明石市 대관소학교, 神戸市北神 상업학교를 졸업하였다. 일본에서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후 선생은 소년가장으로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는 십대후반의 나이에 경제적으로

로 성공을 거두게 된다. 해방직후 한국에 돌아온 선생은 동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본격적인 도서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엄대섭 선생의 도서관 활동을 크게 분류해 보면, 마을문고운동과 공공도서관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그의 마을문고운동과 공공도서관운동은 도서관을 정적인 장소가 아닌 민중대학으로서의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었다.

엄대섭 선생의 마을문고운동은 자주적인 독서운동이다. 공공도서관의 축소형태로서의 마을문고를 지역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소규모의 독서시설처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성장해 나가게 하는 것이다. 엄대섭 선생이 추진한 마을문고운동은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농촌사회개발 단계에서의 운동양식이라 할 수 있고, 단위문고의 지속적인 성장보다는 공공도서관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지향하였다. 한때 3만개에까지 달하던 마을문고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새마을문고'라는 명칭으로 2,643개 정도가 운영되는 실정을 볼 때, 엄대섭 선생의 마을문고운동은 그 운동의 결과보다는 운동의 추진과정과 전개양식, 독서와 도서관 등에 대한 사회적 함의, 에너지 동원력 등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엄대섭 선생의 공공도서관운동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운동 우선주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생은 1983년 계몽단체의 성격을 가진 「대한도서관연구회」를 설립하고 첫째, 공공도서관의 개가열람제 둘째, 관외대출제 셋째,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전략해 가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엄대섭 선생은 독서와 도서관을 학문과 교양을 쌓아 가는 정적인 곳만이 아닌 실천적 생존의

무기로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엄대섭 선생은 도서관학자라기 보다는 도서관의 경영자요, 행정가로서 독서와 도서관이 일반 대중들에게 좀더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 놀라운 추진력과 지구력, 결단력을 갖고 능률적으로 도서관운동을 하고자 노력한 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평등과 권리의식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진보적 사회의식을 가졌던, 엄대섭 선생은 승리보다는 정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덜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용남 교수는 회고한다.

4. 맺는 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도서관문화강좌의 내용으로서, 지금의 문헌정보학에 이르기까지의 기틀을 마련한 국내·외의 훌륭한 도서관인에 대한 것을 다룬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조선도서관협회의 설립을 위해 노력했고 초대 회장이었던 박봉석 선생, 그리고 6.25동란 후 다시 한국도서관협회라는 명칭으로 협회가 설립됐을 때 초대 사무국장을 지낸 엄대섭 선생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두 분 모두 한국의 도서관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지대한 공로가 있는 분들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도서관문화강좌가 계속 이어져서, 현재 도서관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학교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의 각 분야에서 초창기부터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 많은 도서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기에, 각 분야별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도서관인들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박봉석 선생과 엄대섭 선생은 서로 연배도 틀리고 활동한 영역도 도서관운동이라는 큰 테두리는 같지만 구체적인 활동내역에서는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 분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두분 모두 보통 사람이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놀라운 열정과 헌신으로 도서관운동을 하셨다는 것이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냈다' 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옛날에도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조직, 「사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지만 두 분은 근대적인 개념의 현재와 같은 도서관 활동의 시초가 되는 도서관 형식과 체제를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둘째, 진정으로 도서관과 도서관을 사랑하신 도서관인 이었다는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서들인 우리들도 도서관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도서관문화를 만들기 위해, 두 분과 같은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이 맡은 일과 소속된 조직, 이 사회를 감당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참고문헌

남태우, 박봉석의 분류관 : 그가 편찬한 분류 표상의 현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논문집사회과학 34('89.12), pp.37-56

- 박경수 등편,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들의 외길 한평생 2 : 이태영, 윤석중, 장기려, 엄대섭. 장학사, 1981.
- 박희영, 한국의 도서관과 박봉석. 도서관 23,4 ('68.8), pp.9-13
- 엄대섭, 공공도서관 관외봉사와 마을문고. 영등포도서관보 창간호('79.7), pp.43-48, 능동적 봉사와 독서인구의 개척. 도서관 26,9 ('71.9), pp.3, 도서관 행정부재의 현황과 그 대책. 출판문화 237('85.7), pp.5-8., 마을문고와 국민독서. 도서관, 25,7 ('70.7), pp.5-8, 일본공공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 다섯 번 그 현장을 다녀와서. 국회도서관보 171 ('84.4), pp.37-44, 한국도서관계의 당면과제와 국가대표도서관의 설치. 국회도서관보 11,1('74.1), pp.33-38.
- 오동근 엮음,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 태일사, 2001.
- 이용남, 엄대섭과 도서관운동. 제1회 도서관문화강좌 자료, 2001.